

2025년도 사우회 정기총회 열려 새 사우회장에 양영철(보도)회원 선출



2025년 MBC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 27일(목)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위임장을 포함하여 464명이 출석하고, 법무법인 청솔의 양재호 변호사가 임회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윤희 감사의 감사보고와, 류근중 사무처장의 예·결산 보고를 듣고 심의 의결했다. 이어서 차기 회장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양영철(보도)회원을, 그리고 각 부문의 부회장과 이사 및 감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신임 양영철 회장은 1975년 사회부기자로 입사했고,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되었다가 7년 후 복직하여, 문화과학부장, 경제부장, 해설주간, 삼척MBC 사장을 역임했다. 퇴직 후 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 및 한림대 객원교수를 지냈고, 사우회이사, 부회장으로 9년 동안 봉사했다.

새 임원진에는 정호식(편제), 강영은(ANN) 등 60대 회원들이 8명 선임되어, 임원 평균 연령이 젊어졌고, 특히 여성 임원은 종전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사우회는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에게는 프란치스코회관 별실에서 뷔페식을 제공하고, 장우산을 선물했다. (2면에 계속)

사우회를 이끌어 갈 새 임원진

- 감 사 : 이승엽(관리), 박진석(기술)
- 부회장 : 김승월(편제), 박노홍(보도), 고창근(ANN), 최 천(기술), 한귀현(업무), 조승필(관리)
- 이 사 : 정호식, 안혜란, 정은숙(편제) / 조기양, 이향진(보도) / 김창욱, 강영은(ANN) / 천복용, 김명철(기술) / 고준호, 조성식(업무) / 신승철, 임무혁, 류근중(관리)



본사 소식

그룹 혁신 및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MBC 조직개편

문화방송은 그룹 내부 혁신촉진 및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신규 비즈니스 전담 본부를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MBC 공영미디어 연구소를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2월 19일자로 단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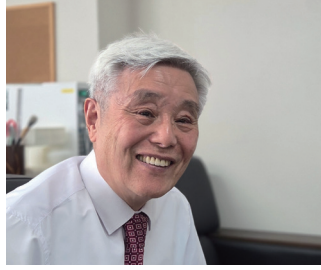
혁신성장본부장 조준목 / 공영미디어연구소장 김경태 / 기획국장 박경추
정책협력국장 김주만 / 미래성장국장 김현철 / 콘텐츠전략국장 유건욱

AI Contents Lab 출범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과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 공급을 통해 방송 산업의 한축을 담당해왔던 MBC C&I가 AI Contents Lab을 출범시켰습니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광고 등 모든 콘텐츠 분야에서 AI 창작기술의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취임인사



언제든 환영하는 MBC 사우회

며칠 전, 한 사우회원께서 제게 들려 주신 말씀이 너무 감명 깊게 다가와서 이 자리에서 소개해 봅니다.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사우회에 가려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서는데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예요. 언제든 환영받고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랜 친구들이 기다리는 사우회에 건강한 두 발로 걸어가시는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성공한 사람이겠어요?’라고 말이야.”

우리 사우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젊은 시절 인생의 황금기에 열정을 불태웠던 옛 얘기를 꽃피우며 밤을 지새워도 지칠 줄 모르는 곳, 노년의 건강한 삶을 함께 나누며 힐링이 되는 모임, 따뜻한 정(情)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사우회가 금년 들어 3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우회가 건실하게 뿌리 내리도록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천 2백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우회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MBC 현역 후배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우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우회가 설립 취지에 걸맞게 회원들의 여

가 활동과 친목 도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호회 모임을 활성화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지금 사우회에는 등산, 바둑, 고전, 낚시 등의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동호회들에 더 많은 사우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분야로도 활동 범위를 넓힐 생각입니다. 특히 신입회원들이 편안하게 사우회 모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후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장의 환경이 옛날 독과점 시대와는 달리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선후배가 이해의 폭을 넓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회원 여러분들 모두 무탈(無顛)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MBC 사우회장 양영철

퇴임인사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3년이란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다 직접 발을 담그고 본 사우회 3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회장직을 맡다 보니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우회장이란 책무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이 든든한 뒷배와 20명 사우회 임원진, 그리고 사무처의 중심을 잡아준 류근종 처장과 이종태국장 덕분이며,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연이라는 걸 맺고 그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은 MBC를 통해 인연이 만들어졌고 그때는 선후배, 뒷사람 아랫사람,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섞인 사회적 인연이라면 여기서 만난 인연은 그와 좀 다릅니다. 사우회 송년회나 문화동산에서 열리는 창립행사 때는 물론 등산대회나 낚시대회를 통해 잘 몰랐던 회원들의 진면목을 알아가는 과정은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사우회는 이곳저곳에 도움을 청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욕심을 낸다면 우리도 이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할 조직으로 변신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우회를 걱정하며 지원해주신 MBC 전현직 임원들과 관계부서의 후배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광고 등으로 성원해주신 관계회사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0여 년을 야생동물만 연구한 <오코넬>이란 동물학자 쓴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라는 책을 보면 야생동물들도 의례라는 의식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간다고 합니다. 코끼리도 동료가 죽으면 장례식에 가서 애도하며 죽은 몸에 흙도 덮어 준다고 합니다. 늑대는 식구가 죽으면 한 달 동안 뛰놀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이가 빠진 코끼리에게 어린 코끼리는 음식을 대신 씹어 주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이런 의례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야생동물들의 행동에서 우리 사우회와 MBC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사우회를 이끌 임원진들이 대폭 교체되었습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젊고 능력이 있는 MZ 임원들이 많이 선임되었습니다. 새로 중책을 맡게 된 양영철 회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새 임원진들에게 많은 기대와 함께 성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전 MBC사우회장 장명호

10대 집행부의 마지막 이사회 “보람 있었습니다. 맺은 인연 감사합니다.”

25년 2월 4일, 사우회 회의실에서 장명호 회장의 주재로 마지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임원 17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을 심의하고 차기 회장, 감사, 이사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퇴임하는 임원들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장명호 회장: “중간에 탄핵당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법과 원칙을 지키며 노력한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우와 소통하며 역할을 다했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큰 영광이자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차기 임원진 구성이 탄탄하니, 앞으로 사우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한윤희 감사: “장 회장님, 구조 조정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김 부회장님도 광고 섭외로 애쓰셨습니다. 저도 사우회를 위해 작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의 사봉을 제 돈으로 제작해 기증했습니다.^^”

김상욱 상임부회장: “이사로 시작해 사우회보 편집장 10년을 포함해 모두 12년 동안 사우회 일을 했습니다. MBC가 잘되어야 하고, 사우회도 MBC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무처 멤버들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탄탄합니다. 차기 집행부도 훌륭히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정연호 부회장: “6년이라는 세월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함께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여러분과 맺은 인연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권혁화 이사: “인생 후반기의 일부를 사우회와 고전동호회에서 보낼 수 있

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덕수 이사: “6년 동안 좋은 인연을 맺으며 함께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평 산골에서 포도 농사에 전념하며, 마음으로 사우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차경호 이사: “좋은 시절이 꿈같이 지나갔네요.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동호회·친목회에서 즐겁고 보람 있게~

바둑동호회

바둑동호회(회장: 이진섭)는 회원들의 기력 향상과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프로 9단 한철균 사범을 지도 사범으로 위촉했다. 한 사범은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수요일 강의와 지도 대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5일에는 'AI 활용법과 AI 신정석'에 대한 강의를 열었다.

현재 회원 수는 40여 명이며, 대표 회원으로 육창웅(편제), 신대근(보도) 사우등이 활동하고 있다.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기 대국을 진행하며, 평균 출석 인원은 10여 명 내외로, 대부분 5급 에서 7급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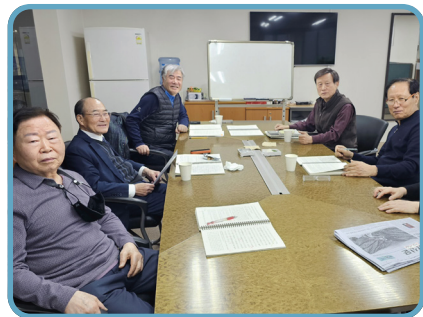


고전동호회

고전동호회 (회장:양진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까지 사우회 사무실에서 한문고전을 공부하는 동호모임이다.

강사는한국고전 번역원에서 국고문헌 『일성록』 번역위원으로 활동한 이견세 훈장으로, '장자'와 '사마천의 사기영선'을 격주로 강의하며 깊이 있는 해석과 토론을 이끌고 있다.

고전 동호회는 2011년 3월 이견세 훈장을 모시고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통감절요, 격몽요결, 논어, 맹자등을 가르쳤다. 이후 권혁화 훈장이 명심보감, 사자소학, 천자문을 강의했으며, 재작년 부터 다시 이견세 훈장이 맡고 있다.



기우회

MBC 기술부문 퇴직자 모임인 MBC 기우회(회장: 김창수)는 지난 1월 24일 종각 파노라마 뷔페에서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친목을 다졌다.

기우회는 20여 년 전 조직되었으며, 회원 수는 약 280명이다. 연 1회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김창수 회장은 5년째 기우회를 이끌며, 회원 간의 유대와 정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정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죠." 김회장의 말이다.



청죽회

MBC 시설부서 퇴직자 모임인 청죽회(회장:장한진)는 지난 2월 13일 고양시 장승고을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에 앞서, 신승철 회원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평산신씨 정언공파 재실'을 방문,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 장군의 업적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죽회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퇴직한 회원들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결성했다. 지금은 격월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회원 수는 약 60명이며, 이 중 30여 명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임회비는 10만 원이며, 회원들의 경조사를 돕는다.



AI, 나도 할 수 있다! MBC 사우회원 맞춤형 AI 무료 특강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재 MBC 사우회보의 원고 편집도 AI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활용법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MBC 사우회에서는 AI로 여행 계획을 짜고, 글을 쓰며, 음악을 만드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무료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 강의명: AI, 나도 할 수 있다!
- 일 정: 2025년 4월 24일 ~ 5월 22일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5월 8일 휴강
- 장 소: MBC 사우회 사무실 (경향신문 10층)
- 강 사: 김용조(IT 코치 및 AI 강사)
한국도로공사 IT부서 21년 근무
(주)모든정보기술 대표 15년 경영

1회 차 (4.24) AI 이해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1. AI 개요 및 역사 2.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개념과 실습	2회 차 (5.01) 생성형 AI 소개과 ChatGPT 활용 1. 생성형 AI 도구 소개 2. ChatGPT의 이해와 활용
3회 차 (5.15) ChatGPT 활용 고도화 1. ChatGPT의 고급 기능 탐색 2. ChatGPT 실습	4회 차 (5.22) ChatGPT 심화 학습 1. ChatGPT의 최신 기능 소개 2. 시니어의 AI 활용 방안 3. 종합 질의 응답 및 토론

※ 선착순 20명이 조기 마감되어, 2차특강(ZOOM) 40명 신청 접수합니다.



문 의 : MBC 사우회 사무처
☎ 02-722-7416
진행팀 : 김승월, 김명철, 이재은

AI특강 기획회의 25.02.19
작로부터 김승월, 김명철,
장명호, 김용조 강사, 이재은

모임 / 행사 안내

- 산악회(회장:최정일) : 서울 둘레길 일부 구간, 일시는 3월 12일 (수) 10시 30분, 집합 장소는 우이선 보국문역2번 출구 /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정기산행
- 고전동호회(회장:양진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12:30, 사우회 사무실에서, '장자'와 '사마천의 사기영선' 강의.
- 바둑동호회(회장:이진섭) : 6월 4일(수) 오후 2시, 사우회 사무실에서 한철규 사범의 강의와 지도 대국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8기 MBC고위 관리자 과정 모임(회장:최천) : 격월 1회 모임, 다음 모임은 4월 23일 (수) 오후1시
- 인사동클럽(회장: 이견세) : 라디오 출신 모임으로, 올 상반기 모임은 5월 12일(월) 12시 30분, 광화문 [안성 또순이집]
(참가 문의: 사우회 사무처 ☎ 02-722-7416)

오늘의 캘리

서툰 반박이
불때우려도
눈이 날 수 있습니다~

박명호(편제) 한국캘리디자인협회 감사,
저서: 『캘리아 놀자』



MBC에서 국악방송까지, 예능 PD의 새로운 도전

시청률 경쟁을 넘어, 국악의 대중화를

인생 2막_원만식 국악방송사장

MBC에서 국악방송까지, 자연스러운 흐름

이름 때문일까. 그는 늘 원만한 인상을 준다. 1990년 「MBC 창작동요제」에서 처음 함께 일했다. 나는 라디오 담당이었고, 그는 TV 쪽의 조연출이었는데, 당시의 첫인상은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PD 였다. 그는 CP, 국장, 본부장, 전주 MBC 사장을 거쳐 지금은 국악방송 사장이다. 지난해 12월, 상암동에 있는 국악방송을 찾았다.

Q 국악방송에서 일하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주대사습놀이」 연출을 10년 가까이 맡았어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씩 전주를 오갔죠. 2000년, 국악방송 라디오가 개국하고 콘텐츠가 부족할 때, 「전주대사습놀이」의 라디오 중계를 요청했습니다.

정작 MBC라디오는 중계를 하지 않았으니, 저희로서는 반가웠지요. 중계 부스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네댓 번 인연을 맺으면서, ‘훗날 MBC에서 퇴직하면 국악방송에서 객원 연출을 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Q 「전주대사습놀이」를 연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MBC 예능에서 1983년부터 중계를 했습니다. 예능의 구종회 선배님과 전주MBC 안홍엽 선배님이 손잡고 시작한 국내 최초의 생방송 국악 경연 대회였습니다. 당시 TV는 낮 방송이 없어서 문공부에 방송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시절이었는데, 성인 대회는

봄, 학생 대회는 가을, 일 년에 두 차례 하루 6-7시간 씩 생방송을 했습니다.

「전주대사습놀이」가 열리면 당시 제작 2부(예능)에서는 구종회 선배를 필두로 PD와 AD 대여섯 명이 전주엘 갔고, 조연출들에게는 필수코스 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국악과 자연 스럽게 연결됐습니다.”

MBC에서 배운 감각, 국악방송에 적용

Q 국악방송 운영에 MBC 예능 PD 경험이 도움이 되나요?

“MBC에서 드라마와 예능은 시청률이 최우선이지요. 시청자가 안 봐주면 프로그램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국악방송은 시청률만을 우선시할 수 없는 특수 방송입니다. 그래도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어야 존재감이 생기죠. 국악방송은 라디오가 개국한 지 24년, TV가 5년 되었습니다. 라디오는 그동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TV는 아직 신생PP이고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정적이라 내년에는 좀 더 눈길을 끄는 동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국악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이유입니다.”

Q 요즘 이남치와 엠비규어스댄스 컴퍼니의 ‘범 내려 온다’ 같은 퓨전 국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곡 히트하고 끝나더군요. 10여 년 전 소녀 명창 ‘송소희’가 등장했을 때도 국악 대중화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더군요. 국악이 뜨려면 지속적인 히트 콘텐츠가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국악공연을 가보면 객석점유율도 높고 관객의 호응도 좋지만, 아직 폭 넓은 ‘대중화’는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MBC 선배들에게서 배운 국악사랑

Q 구종회 선배 PD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예능국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죠. 퇴직 후 지금까지도 「전주대사습놀이」의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전주대사습놀이」의 심사위원 섭외를 할라치면, 판소리든 무용이든 한 마디만 여쭙어도 그 분야 계보를 줄줄 읊으셨죠. TBC가 있던 시절 국악을 좋아했던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인정한 국악 PD였습니다. TBC에서 국악 프로그램을 연출하시다가 1979년 인가에 후발 주자인 MBC가 스카우트 오셔서 국악 프로그램을 만드셨죠.”

Q 그 뒤를 잇는 PD들이 있었나요?

“송승중, 방성근, 그리고 저를 묶어 ‘송방원’이라고 불렀어요. 방성근 PD는 진정한 국악 애호가지요. 노래방에서도 우리 민요만 부르죠. 송승중 PD는 쇼 프로그램의 대가였어요. 가수 나훈아 씨가 ‘MBC는 송승중 PD 아니면 출연 안 한다’라고 할 정도였고 국악 연출도 매우 섬세한 PD였죠. 저희 세 사람 이후로는 대가 끊겼습니다. 요즘 「전주대사습놀이」도 전주 MBC가 직접 제작(전국방송)을 하고 있고, 서울 본사에서 국악프로그램은 사라졌습니다.”

국악방송, 대중과 만나는 길을 찾다

Q 국악 대중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려서부터 국악을 자연스럽게 접해야 합니다. 지난 가을 국립국악원에서 매년 주최하는 「창작국악동요제」를 참관했는데 아이들의 음악적 수준과 열정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 해요. 얼마 전 가수 박인희 씨(1946년생)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서는 (1950-60년대) 미국이나 유럽의 팝이나 컨트리음악을 주로 듣다 보니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Q 유튜브도 신경 쓰시나요?

“당연하죠. 국악방송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쯤인데, 더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국악도 미디어 환경에 적응해야지요.”

Q 앞으로 계획은?

“MBC에서는 시청률이 많은 것을 결정하죠. 국악방송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국악이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화제성 프로그램 기획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악이 더 주목받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예산 드라마도 제작해 볼 계획입니다.”

국악이 더 주목받고, 국악방송이 더 존재감을 갖게 되는 날이 언제 올까. 그의 희망이 열매를 맺었듯이, 그의 도전이 이루어지길 빈다.

대담 정리: 김승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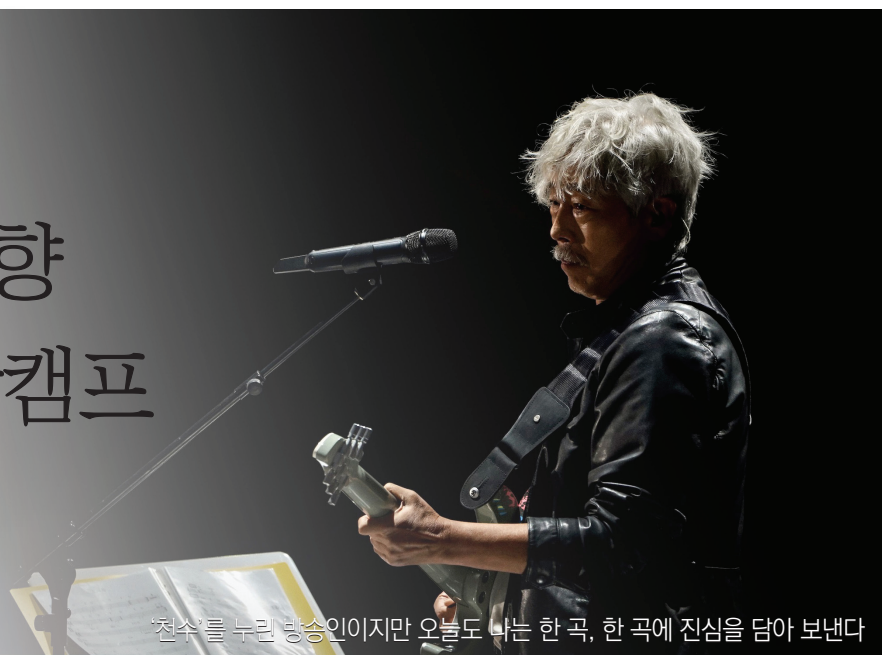
국악방송

2000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설립된 국악 전문 공영 방송국이다. 전통 및 창작 국악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개국했으며, 수도권 FM 99.1MHz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2019년 12월 27일 올레TV를 통해 케이블TV로도 개국했다.



나도 MBC 가족

MBC는 나의 집, 나의 고향 35년을 함께 한 FM음악캠프



“천수”를 누린 방송인이지만 오늘도 나는 한 곡, 한 곡에 진심을 담아 보낸다

방송을 넘어 가족이 된 배철수 (가수, DJ)

안녕하세요, 배철수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제가 지난 2월 28일 방송된 「2024 MBC방송연예대상」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로를 세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음악캠프를 한지, 올해 3월 19일이면 3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MBC FM4U 「배철수 음악캠프」 DJ를, 너 진짜 오래 했으니까. 수고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동안 MBC가 먹고 살게 해주었고, 심지어 MBC직원과 결혼까지 했으니까, 오히려 제가 MBC에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MBC’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TV 할 때도 그랬고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신비의 명약’ 같습니다. 그 이유를 꼭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MBC 정문을 들어서면 기분이 확 좋아져요. MBC는 ‘내 고향’, ‘내 집’ 같지요. 영어로 ‘Home’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하루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 MBC에 있을 때입니다.

MBC와의 첫 인연은 1978년, 「제2회 MBC 대학가요제」입니다. 항공대학교 밴드 ‘활주로’ 멤버로 참가해서, ‘탈춤’으로 은상을 받았죠. 입상하고부터 TV와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디오 「이 밤을 즐겁게」(초기 제목은 「임백천, 왕영은입니다」)를 맡았던 장명호 PD님은 정말 앞서가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밴드와 갓 데뷔한 이문세, 노사연, 김수철, 정태춘, 최백호, 김창완을 프로그램에 자주 불러주었어요. 젊은 음악인들의 집합소이자, 놀이터였죠. 장 PD님은 특히 우리 밴드에 잘해주셨어요.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며,

출연료도 더 주려고 애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TV에서는 1980년대 초반 김명수 PD가 「영11」할 때, 송골매를 하우스밴드처럼 매주 출연시켰어요. 가수들 노래 반주도 해주고, 같이 출연했던 서세원과 코미디도 하고, 마지막에 우리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길거리에서 여학생들이 ‘와, 송골매다!’ 하면서 알아보더라고요, 우리가 버스 타면 따라와 같이 버스 타기도 했어요.

그러다, 1980년 MBC FM 「젊음의 찬가」에 DJ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윤기백 PD가 처음으로 연출을 맡아서, 기존에 진행자들과 다르게, 새롭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같고, 학번도 같고 친구처럼 지내는 저를 DJ로 캐스팅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재미나게 했는데, 6개월 만에 숙된 말로 잘렸습니다. 그리고 딱 10년 후, 1990년에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수만 선배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후임자를 찾게 되었는데, 30대 가수 중에서 찾다가 저로 정한 거 같습니다.

**가수에서 DJ까지
변함없는 음악 사랑
DJ와 PD의 운명적 인연**

FM 음악프로그램에서는 PD하고 진행자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송골매 멤버로 밤마다 클럽에서 연주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30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 시간에 여의도 MBC의 명소였던 7층 창가 로비에 앉아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요거는 좋았다.”, “저거는 아닌 거 같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요, 방송 중에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도 이 음악이 어땠고, 저 음악은 그렇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요. 좁은 스튜디오 안에 단둘이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봤나 봐요.



히딩크감독과 서울시향 음악감독 압판츠베네펠과

일 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윤기백 PD가 묻더군요. “당신하고 박혜영 PD하고 사귀다는 소문이 라디오국에 좌악 퍼졌어. 사귀어?” 그제야 소문이 퍼진 걸 알게 되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스포츠신문에 열애설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진짜 사귀면 되는 거 아냐?”하고 합의(?)를 봤죠. 소문 덕분에, 공개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혜영 PD가 어머니 빼고는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서로이야기도 잘 통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맡은 지 1년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DJ도 하고, 담당 PD와 결혼도 하고...



명프로듀서 나일로저스와 함께

MBC PD들은 다른 방송사 PD들보다 모범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FM(Field Manual)대로 하죠. 규율을 잘 지키는

원칙주의자들입니다. 특히 라디오 PD들이 그래요. DJ를 35년 하니깐 배준 PD, 한재희 PD 등 40~50명의 라디오 PD들과 일한 거 같습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 다룰 수도 있는 건데, 그 분들과는 특별한 마찰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제가 다른 가수들한테도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MBC 라디오 PD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90% 이상은 인격적으로 관찰은 친구들이다.”

좋은 사람들과 35년을 함께 했으니까, 방송인으로는 ‘천수’를 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제 능력보다 훨씬 더 오래 사랑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언제 그만뒀도 이상하지 않지만, 하루, 하루, 한 달, 한 달 즐겁게 방송하는 게 지금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사우회에는 저에게 잘해주셨던 여러 부문의 방송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MBC FM4U에서 1990년 3월 19일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방송한다. 2020년, 음악캠프 30주년에는 영국 BBC 스튜디오에서 「Live at the BBC」를 방송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민선 PD가 연출하고, 김경옥 작가가 35년째 오프닝 원고를 육필로 쓰고 있으며, 배순탁 음악작가, 박소영 작가도 함께 하고 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가 30년째 고정 출연한다.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두 차례나 받았다.

▶ QR 코드를
이용하시면,
배철수씨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신입회원입니다

MBC 명예 사원을 꿈꾸며



남궁 찬(편제)

꿈의 직장에서 명예로운 새로운 시작을 바라며

사우회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 정년퇴직과 함께 사우회에 입회한 남궁 찬 인사드립니다. 지난 12월 열린 사우회 송년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유일한 새내기 회원으로 장내의 박수를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공채 TV PD로 입사한 저는 드라마국, 예능국, 외주제작부서 등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아침 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의 프로듀서로 8년 넘게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무안식년 동안 20여 년 전 동서센터 장학생으로 유학했던 하와이 주립대에

서 방문 연구원으로 1년간 체류하며 한국과 하와이의 방송 프로그램을 비교·연구했습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하와이의 자연과 온화한 기후도 함께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MBC는 어릴 때부터 제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고향 강화도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주신 부모님 덕분에 서대문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때 정동 MBC 사옥을 지나며,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웃으면 복이 와요’, ‘수사반장’, ‘장학퀴즈’, ‘뉴스데스크’ 등을 애청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MBC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고, 결국 평생직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애청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MBC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

두의 자랑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늘 MBC를 애청하셨고, 특히 어머니는 어디를 가든 저를 ‘MBC PD’라고 자랑스레 소개하셨습니다. 저에게 MBC는 단순한 직장을 넘어 삶의 일부였고, 그 소중한 기억은 앞으로도 오래 남을 것입니다.

퇴직 후, 남은 명함의 연락처를 손으로 수정해 사용하거나 ‘퇴직’이라고 적어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모임에서 대학을 퇴직하신 교수님들이 ‘명예교수’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자랑스럽게 건네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MBC를 비롯해 한 직장에서 평생을 바친 직원들도 ‘명예사원’이라는 명함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명함이 없더라도, 저는 이제 MBC의 명예 사원이 되었다고 생

각하며 사우회 활동에 참여하려 합니다. MBC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사로 더욱 발전하도록 응원하며, 직장생활 동안 저를 지도해 주신 선배님들께 앞으로도 좋은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싶습니다.

2025년 새봄을 맞아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선배님들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BC 정동 사옥 앞을 지나며 꿈을 키워왔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보낸 시간들. 이제는 명예 사원으로 서 MBC를 응원합니다.”

경조사항

- 구순: 엄웅열(대구) 36.04.01 이명구(기술) 36.04.05 권순복(업무) 36.05.10
팔순: 박경삼(편제) 46.03.23 이영호(대구) 46.03.25 김상옥(편제) 46.03.30
이건세(편제) 46.04.03 김영택(보도) 46.04.26 박찬순(편제) 46.05.05
유희근(보도) 46.05.09 한박무(보도) 46.05.09 이승문(편제) 46.05.12
고희: 최세훈(보도) 56.03.22 박성숙(업무) 56.03.27 홍춘표(관리) 56.04.02
정홍보(보도) 56.04.03 배대윤(보도) 56.04.03 최현곤(기술) 56.04.07
봉현숙(편제) 56.04.10 박영민(보도) 56.04.10 최우철(편제) 56.04.26
조학동(기술) 56.05.03 최경미(ANN) 56.05.05 이은용(기술) 56.05.07
문장환(기술) 56.05.10 류중현(보도) 56.05.12
회갑: 윤영례(업무) 65.03.20 남행정(관리) 65.04.23

- 결혼: 이선호(보도) 아들 02.16 황효성(관리) 딸 03.15
부음: 이대희(관리) 부친상 01.08 최영달(편제) 모친상 01.14
임경수(편제) 모친상 01.17 이정식(편제) 모친상 01.18
지석원(편제) 모친상 01.25 이소진(관리) 부친상 01.26
심준보(업무) 모친상 01.26 박은숙(관리) 모친상 02.02
이낙용(보도) 배우자상 02.03 안택호(편제) 장모상 02.06
유세준(관리) 모친상 02.09 윤창호(편제) 장모상 02.12
신동석(관리) 장인상 02.26

연회비

평생회비 : 김기현(기술) 이형곤(관리)

- 2024년 : 정갑표(기술) 정영수(관리)
2025년 : 박화진(편제) 엄영수(편제) 이성호(편제) 권혁화(ANN) 백명순(ANN) 정연호(ANN)
김종오(보도) 고준호(업무) 조성식(업무) 강효복(관리) 이하결(관리) 최정일(관리)
황효성(관리) 서정호(대구) 정명환(대구) 윤남현(대전) 정진도(전주)
2026년 : 심우승(편제) 홍순홍(편제) 홍신숙(관리)
2027년 : 노형식(편제)

주소변경 / 신규

- 편제 : 노형식 인천 서구 이음5로 15 (원당동, 호반써밋 1차)
전진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동막점터길
ANN : 최화숙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0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도 : 정동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차경호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0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기술 : 김기현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33 (마곡동, 마곡엠밸리7단지)
이성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14단지)
관리 : 김학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0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신해명 경기 여주시 향교로 92 (교동, 여주역 센트레빌 트리니체)
윤광중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255번길 46 (킨텍스아이파크)
이형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523 (일산동, 에이스11차아파트)
C & I : 공형석 서울 성북구 길음로 16 (길음동, 길음뉴타운) 삼성레미안
이준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61 (일산파밀리에4단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근학(관리)
2월 22일 별세. 향년 81세
1972년 입사
본사 총무국장, 감사, 포항MBC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장 역임.
1992년 대통령 표창 수상(이웃사랑 실천운동, 1992.6.29)



박태환(관리)
1월 24일 별세. 향년 92세
1964년 입사
총무부



MBC사우회 협약업체 | 세란병원 건강검진센터 1577-0196
C&G라이프 상조서비스(박성준 대표) 010-8761-6643
JC소망안과(여의도) 전용예약 콜센터 02-785-1068

/회/원/등/정/



서정훈(보도)

서정훈 전 여수 MBC 사장이 (사)한국 체육언론인회 제11대 회장에 연임됐다. (2월 20일)
서정훈 회장은 스포츠 국장과 MBC PLUS 이사를 거쳐 여수MBC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앞으로 3년간 ‘Sports Journal Korea’의 발행인으로 한국체육언론인회를 이끌게 된다.



이현우(ANN)

이현우 사우가 지난 3월 12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2025년 (사)아나운서클럽 정기 총회에서 제 1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아나운서클럽은 MBC, KBS, SBS 등 한국의 모든 방송사의 전현직 아나운서들의 단체로 1991년 설립 되었고 회원 수는 600여 명이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사우에세이

이별... 죽음... 그 남기신 뜻은...



이연재(보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다시 생각하게 된 삶과 죽음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20여 일이 지났다. 보름 넘게 어머니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함께했다. 영면에 이르는 과정이 낱알이 펼쳐졌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다. 94년을 머물던 이승을 훌쩍 떠나신 뒤, 나는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병원에서 받은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 휴대전화가 하루 한두 번씩 울린다. 하지만 받아야 할 분은 이제 계시지 않는다. 나도 굳이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럼에도 방전되지 않도록 충전 상태로 두고 있다.

어머니는 빨간색 작은 손지갑도 남기셨다. 안에는 접힌 오만 원권과 만 원권 지폐가 몇 장 들어 있다.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선뜻 용돈을 건네시곤 했

다. 어떤 이는 그런 어머니를 ‘돈질’ 잘 하는 할머니라고 흥봤지만, 나는 그 마음을 잘 안다.

오랜 친구이자 목회자인 벗이 단체 채팅방에서 물었다.

“연재공, 혹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ㅎㅎ”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건 깨달음(깨침)이었는데,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며 그마저도 놓아버렸어. 생사가 한순간이 더군. 생사 초월, 해탈... 그런 건 다 헛소리였어.”

우리는 늘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산다. 너무 가까이 있어 그 가치를 모른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바로 호흡이다. 태어나면서 처음 울며 들이쉬는 숨,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쉬는 숨. 그것이 끝이다.

나는 몇 개의 호(號)를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탄연(坦然)이다. 어느 날 선시(禪詩)를 읽다 ‘탄연불포어생사(坦然不怖於生死)’, 즉 ‘평온하게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구절에 마음을 빼앗겼다. 죽음에 대해 어설프게 사색하며 ‘생사일여(生死一如)’를 운운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죽음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겪으셨던 육신의 고통은 죽음을 통해 비로소 끝이 났다. 자식에게 무거웠던 짐도 내려놓으셨다. 죽음은 다름도, 미움도, 탐욕도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쫓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3-16) 바울의 쫓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섬기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달려감’은 혼자의 땀박질이 아니었다. 그는 바톤을 전하며 달려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것은 이어짐의 한 매듭이다. 바톤 터치다.

어머니가 내게 넘겨주신 바톤의 무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일본의 시인이자 서예가인 아이다 미쓰오(相田みつお)의 붓글씨를 늘 가까이 두고 있다.

“一生燃燒 一生感動 一生不悟”
(한평생 불태우고, 한평생 감동하고, 한평생 깨닫지 못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울리는 말은 마지막 구절, “一生不悟(평생 깨닫지 못할 것이다)”이다.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

어머니처럼...

평생 적을 만들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없이, 늘 베풀며.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형곤(관리)
1987년 입사,
문화사업부,
보도운영부,
기획사업센터,
경영지원팀 근무



김기현(기술)
1987년 입사,
TV중계부, TV송출팀,
2024년 퇴사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 (1월 14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지석원(편제)
100만원



신승철(관리)
50만원



유혜자(편제)
50만원



정진(보도)
10만원



심준보(업무)
10만원



유세준(관리)
10만원



심우승(편제)
6만원



오명환(편제)
3만원



익명 30만원

“장명호회장님 계실 때 한번 내야지 하다가, 죄송하게도 끝 무렵이 되었네요. 그래, 그냥 보냈죠. **사실 더 내야 하는데 그렇게 가 안돼요.**” 유혜자(편제)사우가 50만원씩 2 차례 보내주셨습니다.

“사우회에서 고지했으니까 냈지요^^ 발전기금 낸 지도 오래 되었고, **조금이나마 도움되면 좋겠네요.**” 지석원(편제)사우가 1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발전기금 납부 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사우YouTube

원월드 TV - 경력 언론인들이 꿈꾸는 하나 되는 세상

2024년 1월 첫 방송을 송출한 ‘원월드 TV(One World TV)’는 출범 1년 만에 구독자 3만 명에 육박했다. 현재까지 방송된 콘텐츠는 130개로, 매주 2회씩 꾸준히 제작됐다. 원월드 TV는 1인 유튜브를 넘어 경력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집단 방송 체제로 운영된다. 언론사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대립하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 3개월 전 트럼프 당선을 예측해 화제가 됐다. 최노석(보도)사우가 대표이고 류종현(보도)사우가 부대표로 함께한다.



시간안내

『강 건너에는』 - 지리산 수필가 구영희의 여덟 번째 에세이

그동안 자연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글로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아온 작가는 이번에 우리 삶의 보편성과 하나하나의 개별성이라는 주제에 천착했다. 작가와 주변인들 개개인의 다채로운 삶의 풍경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주하는 커다란 인생의 흐름에 대해 한층 깊어진 사유를 담아냈다. 산중생활에서 길어 올린 맑은 사색과 아름다운 지리산 사진이 어우러진 이 책은 인생을 관조하며 영혼의 안식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 (나남신서, 270쪽, 16,200원)



정동레터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가 열린 날 아침, 이석일, 이용우사우님이 먼저 도착해 행사 물품을 옮기셨습니다. 잠시 후, 윤풍기사우님이 알로에 음료 한 박스를 두고 가며 “수고합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런 마음 덕분에 행사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MBC사우회보도 ‘들리는 신문’을 시도합니다. 배철수씨의 글을 배철수씨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녹음파일과 QR코드로 연결했습니다.

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링크가 나오고, 링크를 클릭하면 배철수씨가 녹음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회보 편집위원으로 류근중, 박상규 사우가 수고하고 있는데, 정은숙 사우가 새 편집위원으로 합류하여 3월호부터는 전체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우님들의 참여로 더욱 정감 있는 사우회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편집장 김승월

MBC 사내독립사업의 힘!



블래스트의 버추얼아이돌 'PLAVE'

★ 제39회 골든디스크 인기상 ★

★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

구성원의 끼를 즐거운 사업으로!!!

MBC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역 놀거리 플랫폼

I'm Not Seoul

아임낫서울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

남영석, 박승규



“서울 밖이 더 재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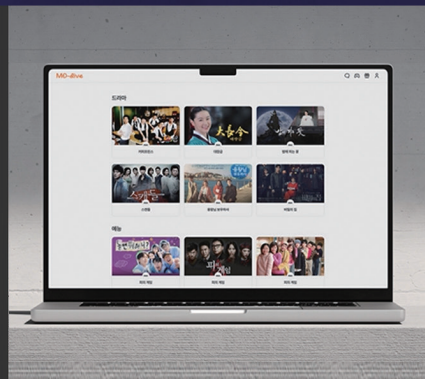
본사 IP 캐릭터 사업

MO-dive

Mo-dive

IP & AI 활용 콘텐츠 사업

임다솔



“당신의 MBC 친구와 게임을”